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민주*[†], 황기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An Impact of Perceived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in-Ju Park*[†], Kee-Ah Hwa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Abstract〉

This study aims at looking into the differences of the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of the high school first and second graders according to their school type, family background factors and family strength.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ve influences of those students' school type, family background factors and family strength factors on their school adjustment by gender.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shows som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school type and gender but does not exhibit any interaction effect. Second, the parent's educational levels don't show any difference on their school adjustment by both gender. Third, the most important predictor affecti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is family strength factors in boys and girls all together.

Key words : Family Strength,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위치에서 자아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에서 긴장과 소외, 혼돈을 경험하기 쉽다. 또한 자기존재와 능력을 탐구하고 새로운 가치와 삶의 방식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위환경과의 마찰을 빚게 되고 이로 인하여 청소년 개인에게 혹은 그가 속한 가족이나 사회에서 문제시 화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생활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구자은 2000; 김순희 2002).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양순, 현희순 1999)이처럼 학교적응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적응이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 환경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잘 조화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학교적응이란 용어는 '과정'보다는 '상태'의 의미로 사용되고 정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환경이라는 넓은 개념뿐만 아니라

[†] Corresponding author, Tel : 010-6633-0252, E-mail : tokki0911@empal.com

더욱 구체적인 상황들로 학교적응을 정의하고 있다. 학교생활 적응은 학생들이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 활동 등에서 자기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학교적응의 몇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어 학교적응을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Dubois(1994)는 학생이 학업성적, 학교 출석일, 학습에 관련된 자아 개념 등으로 학교적응을 개념화하였다. 청소년의 적응과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청소년 개인 특성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가족체계에 따른 유기체적인 접근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적응과 학교생활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는 가족문제와 직결되므로 가족집단의 특성을 배제한 채 청소년의 문제와 해결점을 찾기 힘들다고 본다(양순미 등 2003). 그 동안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가족을 연구하는 하나의 관점인 건강 가족적 관점(Strong family perspectives)으로 새롭게 제시해 온 Olson과 Defrain(2003)은 가정의 건강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모든 가정은 잠재적인 성장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건강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의 건강성은 가정의 구조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 가족적 관점(Strong family perspectives)은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며 오늘날의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는 개방체계(Open system)로서 어느 한 측면의 강화만으로는 전체 체계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다. 즉, 건강한 가족체계는 개별 가족구성원의 가치관 및 노력여하, 그 가족이 속한 확대 친족 체계나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Olson, DeFrain 1994 ; 어은주 1994, 재인용). 결국 가족원 개개인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가족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건강한 가족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서병숙(1994)은 건강한 가족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유영주(1994)는 개인차원에서의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차원에서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을 건강한 가족이라고 함으로서 가족체계 내에서의 개인 및 관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 가족적 관점은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가족

생활의 성공을 원하는 다른 가족원들에게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건강가족을 형성케 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것으로 가족 내의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기초로 삼음으로써 가족문제나 기타 병리적인 가족의 특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가족치료자들과 상담자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유영주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성별, 학교계열, 가족배경변인 및 가족건강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계열과 가족배경변인 및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성별에 따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건강가정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성과 학교계열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2.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배경변인(부모교육수준, 가계소득)과 가족건강성에 따른 차이는 성에 따라 어떠한가?
 - 2-1.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성에 따라 어떠한가?
 - 2-2.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는 성에 따라 어떠한가?
 - 2-3.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건강성에 따른 차이는 성에 따라 어떠한가?
3.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학교계열, 가족배경변인 및 가족건강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성에 따라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의 각 2개교씩 4개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 699명의 청소년을 표집하였다. 이 중 실업계 고등학생이 395명

(56%), 인문계 고등학생이 293명(41%)이고, 남학생이 257명(36%), 여학생이 440명(62%)이었다. 연구대상의 청소년과 그들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316명(4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졸업이 202명(28.9%)이었으며, 어머니 교육수준은 고졸이 409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졸업이 127명(18.2%)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일반 사무실 종사자,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208명(2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가 182명(26%)이었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이 327명(4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판매, 서비스직 종사자가 142명(20.3%)이었다.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251만원-300만원 이상이 271명(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51만원-250만원이 201명(28.8%)이었다.

<표 1> 연구대상 청소년과 부모의 변인별 분표 (N=699)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학교 계열	실업계	395	56.5
	인문계	293	41.9
성별	남	259	36.8
	여	440	62.9
부 교육 수준	초등졸	11	1.6
	중졸	36	5.2
	고졸	358	51.2
	대졸	262	37.5
	기타	11	1.6
모 교육 수준	초등졸	18	2.6
	중졸	63	9
	고졸	409	58.5
	대졸	177	25.4
부 직업	무직	29	4.1
	단순 노무직	44	6.3
	판매, 서비스직	182	26
	사무직, 계장급 이하 공무원	208	29.8
	기술직, 사무관리직, 종교 관계자	166	23.7
	전문직 및 대기업주	31	4.4
모 직업	주부	327	46.8
	단순 노무직	56	8
	판매, 서비스직	142	20.3
	사무직, 계장급 이하 공무원	72	10.3
	기술직, 사무관리직, 종교 관계자	37	5.3
월 평균 소득	전문직 및 대기업주	33	4.7
	150만원 이하	165	23.6
	151만원-250만원	201	28.8
	251만원-300이상	271	38.8

2. 측정도구

1) 가족의 건강성 척도

가족의 건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가족이 제시하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과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어은주, 유영주(1995)가 제작한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건강성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6문항) 그리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로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의 건강성 4개 하위 요인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원간의 유대는 가족원간의 친밀감, 애정, 함께 시간 보내기, 가족의 화목, 관심, 지지, 사생활 인정 등의 정서적인 측면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②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정도, 개방성, 명확성, 표현의 자유, 의사소통 유형, 의사결정시의 발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③ 가족의 문제 해결 수행 능력은 문제와 위기 발생 시 가족원이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④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는 가족만의 가치관이나 규범이 있는지, 가족의 가치관이냐 규범에 가족원이 모두 동의하는지, 혹은 연장자에 대해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항상 그렇다'에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제적인 가족의 건강성 및 각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 건강성척도의 각 하위요인의 문항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2>와 같다.

<표 2> 가족건강성 척도의 문항과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 번호	신뢰도 계수
가족원간의 유대	2, 5, 9, 14, 18, 21, 24, 27, 31, 33	.92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1, 4, 8, *17, 20, 23, 26, 30	.88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3, 6, 10, 15, 19, *28	.82
가족간의 가치체계 공유	7, 11, 12, 16, 22, 25, 29, 32, 34	.86
가족 건강성 전체	1-34	.96

*; 역산처리

2) 학교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김용래(1993) 제작의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척도는 학교환경적응(10문항), 학교교사적응(10문항), 학교수업적응(8문항), 학교친구적응(7문항), 학교생활적응(6문항)으로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적응의 5가지 하위 요인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환경적응은 학교환경을 바르게 수용해서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학교환경에 수반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한 정도 ② 학교교사적응은 학교교사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교사와의 관계에서 수반하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한 정도 ③ 학교수업적응은 학교수업상황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업시간에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수업시간에 유발하는 학습자 개인의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대처한 정도 ④ 학교친구적응은 학교친구들과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친구 간에 유발되는 각종 스트레스에 대처한 정도 ⑤ 학교생활적응은 교내의 질서 등 교내 생활전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파악하면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처한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총 4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는 리커트형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용래 1993).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들의 문항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학교적응척도의 문항과 신뢰도 계수

하위영역	문항번호	신뢰도 계수
학교환경	5, 7, 9, 10, 11, 12, 13, 14, 15, 16	.92
학교교사	4, 24, 25, 26, 27, 28, 29, 30, 31, 32	.88
학교수업	33, 34, 35, 37, 38, 39, 40, 41	.85
학교친구	17, 18, 19, 20, 21, 22, 23	.82
학교생활	1, 2, 3, 6, 8, 36	.82
학교적응 전체	1-41	.94

3. 연구절차

측정도구에 대한 이해와 연구절차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시내 실업계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2학년 에 재학 중인 53명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2006년 2월 14일)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 각 측정도구의 문항은 이해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절차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는 2006년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 4개교를 임의 표집 하여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과목담당교사에게 실시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검사 실시 절차는 담당교사가 질문지의 표지에 있는 검사의 목적 및 기재사항과 응답요령을 읽어준 뒤, 지시사항에 따라서 각자가 시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학생 총 780명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으나,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69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12.0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은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1은 t검증, 연구문제 2-2 일원변량분석, 연구문제 2-3은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은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검토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성별과 학교계열에 따른 차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이 성별과 학교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별과 학교계열의 학교적응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표 4〉 성별과 학교계열에 따른 학교적응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학교적응	남학생		여학생		합계	
	M	SD	M	SD	M	SD
실업계	121.24	25.50	114.61	23.26	117.30	24.38
인문계	127.26	23.89	123.67	21.60	124.78	22.35
합계	123.47	25.04	118.92	22.91	120.57	23.79

〈표 4〉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성과 학교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성별과 학교계열에 따른 학교적응 점수의 이원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교적응	성별	3731.096	1	3731.096	6.81**
	학교계열	8135.940	1	8135.940	14.85***
	성별 × 학교	331.639	1	331.639	.606
	오차	352128.2	643	547.633	
	합계	9772193	647		

p<.01 *p<.001

〈표 5〉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점수는 성(F=6.81, p<.01)과 학교계열(F=14.85, p<.001)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성과 학교계열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지 않았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 보다 학교생활에서 적응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 한다는 연구결과(김양순, 현희순 1999) 및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 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결과(임정아 2005)와 일치한다. 그러나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결과(구자은 2000) 및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학교생활적응이 높다는 선행 연구(계선자 등 2001)와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성과 학교계열에 대한 연구가 일관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향상을 돕기 위한 지도와 상담을 할 때 성과 학교계열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의 성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배경변인(부모교육수준, 가계 소득)과 가족건강성에 따른 차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성에 관계없이 부모 교육수준에서 전문대학 졸업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이하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부모 교육수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 학교적응의 차이

구분	교육 수준	학교적응	
		남 M(SD)	여 M(SD)
부	고등학교 졸업이하	120.28(25.07)	117.45(22.86)
	전문대학 졸업이상	126.44(25.34)	122.14(22.80)
	t	-1.85	-1.94
모	고등학교 졸업이하	121.00(23.44)	118.56(22.76)
	전문대학 졸업이상	127.78(28.20)	121.09(23.26)
	t	-1.92	-.917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남학생(F=.25)의 학교적응은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학생의 학교적응은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학생의 학교적응(F=5.50***, p<.05)은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Tukey 사후검증을 한 결과 여학생의 경우 가계소득 150만원 이하와 251만원 이상에서 p<.01수준에서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이 251만원 이상인 여학생이 150만원 이하인 여학생 보다 학교적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용희 1989; 임경희 1994)와 부분적으로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인다. 이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차이나 그 외 변인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차이 인 것으로 보인다.

〈표 7〉 가계소득에 따른 청소년 학교적응의 차이

가계소득	학교적응	
	남 M(SD)	여 M(SD)
150만원 이하	122.07(27.67)	113.72(22.66)*
151만원- 250만원	123.08(24.72)	120.18(22.51)
251만원 이상	124.94(24.10)	123.45(23.40)**
F	.25	5.50***

*,** Tukey사후검증(p<.01), ***p<.01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건강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남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의 하위요인 중 가족원간의 유대(t=-4.11***, p<.001)와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t=-2.69**, p<.01) 및 가족간의 가치체계공유(t=-4.79***, p<.001)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하위요인인 가족원간의 의사소통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족건강성의 모든 하위요인인 가족원간의 유대(t=-6.05***, p<.001)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t=-6.28***, p<.001),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t=-6.10***, p<.001) 및 가족간의 가치체계공유(t=-6.58***, p<.001)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을 높이 지각하는 청소년 일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는 연구(임정아 2005; 어은주, 유영주 1995)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 한다는 결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족원 개개인의 자아개발·성취와 더불어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 유대성이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하는 건강한 가족 일수록, 그리고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가족 일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가족건강성에 따른 학교적응에 관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8〉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가족건강성		학교적응	
		남 M(SD)	여 M(SD)
가족원간의 유대	높음	128.19(26.12)	124.61(22.45)
	낮음	115.42(20.00)	111.20(21.41)
t		-4.11***	-6.05***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높음	125.15(26.80)	124.24(22.05)
	낮음	120.26(22.83)	110.10(21.81)
t		-1.48	-6.28***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높음	127.17(25.62)	124.03(22.93)
	낮음	118.44(23.56)	110.25(20.39)
t		-2.69**	-6.10***
가족간의 가치체계 공유	높음	132.08	126.37(23.57)
	낮음	116.68	112.06(20.20)
t		-4.79***	-6.58***

p<.01, *p<.001

3. 청소년의 성별 학교적응에 학교계열, 가족배경 변인 및 가족건강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의 위반여부와 전반적인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확인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각 독립 변인 간 상관계수가 남학생 .495, 여학생 .532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4. 남학생의 학교적응에 학교계열, 가족배경 변인 및 가족건강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학교계열, 가족배경 변인(부모 교육수준, 가계소득) 및 가족건강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남학생의 학교적응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가족건강성($\beta = .328, p<.001$)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인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1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남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모든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이 가장 중요한 예측 변인이며, 학교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 남·여학생의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변인	학교계열	부 교육수준	모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족건강성
남학생	학교계열	1				
	부 교육수준	.228***	1			
	모 교육수준	.226**	.495***	1		
	가계소득	.354**	.272***	.207**	1	
	가족건강성	-.111	.037	-.003	-.005	1
	M	1.38	1.474	1.317	2.20	110.755
	SD	.487	.500	.466	.807	24.135
여학생	학교계열	1				
	부 교육수준	.382***	1			
	모 교육수준	.195***	.532***	1		
	가계소득	.400***	.329***	.202***	1	
	가족건강성	.142**	.088	.016	.264***	1
	M	1.49	1.328	1.220	2.14	115.34
	SD	.501	.470	.415	.805	22.713

p<.01, *p<.001

〈표 10〉 남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학교계열, 가족배경 변인 및 가족건강성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학교적응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학교계열		4.013	.080
부 교육수준		3.898	.079
모 교육수준		5.983	.114
가계소득		-3.013	-.099
가족건강성		.334	.328***
상수		72.606	
R ²		.14	
F		6.132***	

***p<.001

5. 여학생의 개인, 가족배경변인 및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여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학교계열, 가족배경 변인(부 모 교육수준, 가계소득) 및 가족건강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여학생의 학교적응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가족건강성($\beta = .382, p < .001$)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학교계열($\beta = .162, p < .01$)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인의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계열, 가족배경 변인 및 가족건강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남학생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없었고 여학생의 경우 학교계열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가족건강성은 성에 관계없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11〉 여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학교계열, 가족배경 변인 및 가족건강성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학교적응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학교계열	7.569	.162**
	부 교육수준	.768	.015
	모 교육수준	.864	.015
	가계소득	-.283	-.010
	가족건강성	.393	.382***
	상수	61.542	
	R ²	.19	
	F	15.540***	

p<.01 *p<.001

학교계열은 여학생에게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남학생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학교계열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학교계열과 가족배경변인 보다 가족건강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가족의 건강성을 지켜나가는 것과, 가족의 정서적·관계적 상호작용을 강화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복지 차원에서 물리적인 지원과 함께 가족의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건강성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 보다 학교적응이 더 높았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성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가계소득에 따라 학교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요인 중 남학생은 가족원간의 유대가 높을수록,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가족 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도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의 모든 요인인 가족원간의 유대가 높을수록,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가족 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족건강성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여학생의 경우 학교계열이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족건강성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관련하는 사회변인, 관계변인, 학교환경변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보다 타당한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학교, 그리고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에서부터 중학생, 대학생 전체에 대한 학교 적응 정도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하여 가족건강성에 대한 지각 정도를 알아보고, 차이와 일치되는 영역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세대 간의 가족의 건강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참고 문헌

- 계신자, 이정우, 김명자, 박미석, 유을용(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실 태 및 학교생활 만족도, 대안가정학회지 39(2): 57-72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김순희(2002).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양순, 현희순(1999). 청소년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 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제주시 고등학생 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1)
5. 김용래(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변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김용희(1989). 중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과정과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류경희(2003).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147-168
8. 서병숙(1994).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가 정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가정관리학회 제 17차 총회 및 학술대회집*
9. 양순미, 유영주(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10. 유영주(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제 16차 한국아동학회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집
11. 유영주, 어은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6
12.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교문사, 서울
13. 유영주(2002). 건강가족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 *생활 과학논집* 6(1): 1-24
14. 어은주(1996). 한국 도시 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 임정아(2005).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최선희(1999). 한국인의 가족 건강성 영역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 DuBois, D.L., Eitel, S.K., Felner, R.D.(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18. Olsen, D., DeFrain, J.(1994).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Mayfield publishing Company